

# 민선 8기 첫 추경안 제출

###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 공약사업 이행에 방점

익산시는 민생경제 안정과 민선 8기 주요 공약·현안사업 이행에 중점을 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1조 8,509억원 규모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 1조 6,030억원보다 15.5% 2,479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해 편성했다.

민생경제 안정과 민선 8기 주요 공약·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얻고자 재정적 역량을 최대·확장, 편성하였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골목

상권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다이로움 발행을 확대하고 주요 공약·현안사업과 국·도비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익산시탕상품권 발행 및 운영 610억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8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 5억원 △소상공인 정부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5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주요 공약·현안 및 국·도비 대응

사업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80억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12억원 △학호마을 추사대입사업 79억원 △전기승용차·화물차·버스 구매지원 59억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8억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정현을 시장은 "민선 8기의 첫 추경 예산안인 만큼 적재적소에 신속집행하여 고물가로 인해 힘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4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 원광대학교가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 사람 · 자연 함께하는 녹색 정원도시

### 익산시 · 원광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맞손'

익산시의 원광대학교가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개방 가능한 민간정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와 원광대는 최근 학교 내 자연식물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이 완료되면 시는 다양한 수종이 서식하는 식물원 특성을 반영해 자연생태프로그램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어 산책로 정비, 계절별 꽃 식재 등을 통해 최고의 자연 체험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는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는 아름다운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은 학교 내

10만2천여㎡ 부지에 조성됐으며 소나무 등 목본 1천215종, 맥문동 등 초본 587종 등 다양한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자연식물원으로 등록되어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현재 식물원에 연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어 여름 정취를 더하고 있다. 만발한 연꽃향기와 함께 다양한 여름꽃을 즐길 수 있어 힐링이 필요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연식물원 개방 시간은 하절기(4월~10월) 오전 9시~오후 6시, 동절기(11월~3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이며, 휴일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은 다양한 식물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학습장이다"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녹색 정원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역전의 명수 5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마쳐

### 군산시, 주역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 열려

군산시는 월명야구장 일원에서 진행된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행사'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행사'는 제26회 황금사자기 야구대회 결승전 대역전극 우승을 기념하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기념행사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었으며, 기념식, 레전드 포토타입, 건강체험존, 투타체험존, 플리마켓, 사진전, 친선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했다.

16일 오후 6시 30분에 진행된 기념식(공식행사)은 1부, 2부 행사로 나눠 다채롭게 진행됐다.

1부 기념식은 지역 단체와 가수 우연이의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후 김봉연 레전드의 개회선언, 50주년 기념영상시청, 공로패수여, 내외빈



군산시는 월명야구장 일원에서 진행된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행사'가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 레전드와 함께하는 기념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외빈과 레전드가 함께 한 기념시구 퍼포먼스는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의미를 전

달하며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고 이어 2부 행사에서는 해민, 하동진 등 유명 가수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을 끝으로 기념식의 막을 내렸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문화도시 추진 아이의 탄생 축하 사연 공모

익산시가 문화도시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보석처럼 귀한 아이의 탄생 축하 사연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사람이 보석이 되,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안에 출생한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이다. 익산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겪은 에피소드, 소중한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아이와 관련된 진솔하거나 특별한 사연을 담아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선정된 사연의 아이에게는 20만원 상당의 탄생석을 활용한 기념품을 증정하며 시상식은 10월 말 개최되는 보석문화축제(가칭) 기간 중 진행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모든 도시와 마을이 특별하듯, 익산의 모든 시민과 아

이들은 소중한"이라며 "그 보석 같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전신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상세 문안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063-853-6780)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공무원 조직역량강화 교육추진

군산시가 건강한 조직문화와 코로나 블루 극복,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 교육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베이비 부머의 퇴직과 신규 공무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시 조직 구성원의 변동으로 계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과 함께 시정목표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중에 있다.

시는 또 2년이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방역과 지원업무로 공무원들의 피로감 해소를 건강관리 조직문화 조성, 포스트 코로나 행정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개설해 지난 6월까지

240명이 수료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자체의 관광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교육 과정을 개설했으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교육과 응급처치 교육, 미래사회 먹거리와 변화를 대비 4차산업혁명의 이해 교육 등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은 변화하는 미래환경에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봉료간 소통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활동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금강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군산시는 최근 금강도서관 개관에 맞춰 도서관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

이는 조춘동 내홍동 등의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민원서류 발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센터 방문시 민원발급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조춘동 공동주택 단지 중심에 위치한 금강도서관의 내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금강도서관의 시험 운영이 종료되고 정식 개관 후에는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부동산 등기 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 15개 분야 110여종이고, 신분카드 및 체크카드와 모바일 간편결제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 익산시,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행

익산시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사업에 선정돼 검진 대상자 및 검진 의료기관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이나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질환 관련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근골격계·심혈관계·골절위험도·폐활량·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진행된다.

시에 거주하는 만51~70세 여성농업인 500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예약전화 후 8월~11월 말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시에서 나머지 자부담 10%를 지원해 여성농업인들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